



키비탄소식

2004년 • 제 3 호

Builders of Good Citizenship

□ 국제키비탄 국제본부 바비 윌든 총재의 메시지



바비 윌든 총재

한국 키비탄 가족의 행복과 발전을 빌면서

한국 키비탄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여러분께서 친절하고 정중한 대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듣고 알고 있었던 한국 키비탄의 활동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롯데 호텔에서 베풀어 주신 저희들 일행을 위한 환영 만찬에서 한국 키비탄의 지도자 여러분과 각 클럽 회장 여러분을 만나뵙고 환담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환영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국제본부 총재에 취임한 후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키비탄 회원들은 누구나 자원봉사원임을 알고 우리 키비탄의 신조를 실천해야 하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원모집원 역할을 할 때 우리 키비탄은 날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한국의 키비탄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키비탄 회원 모두가 다함께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한국 키비탄을 방문해서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한국본부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큰 잔치에 참석하여 즐겁게 뛰어노는 장애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즐거운 표정들을 목격한 일입니다. 이 행사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매우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키비탄이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참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활의 의지를 다지게 하고, 부모님들이 보다 밝은 희망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 참으로 훌륭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키비탄 가족 여러분은 계속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뜻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본부의 역대 총재단을 비롯해서 임원진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봉사활동으로 그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셨기에 틀림없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키비탄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회원을 배로 증가시켜 회세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항상 회원모집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훌륭한 동료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몇 배로 힘써서 클럽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을 배로 늘려가는 운동에 동참해 성공을 이룩해 나가지기 바랍니다. 한국 키비탄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아울러 한국 키비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각 클럽 활동

<은하수클럽>

• ‘제5회 푸른광명 만들기 시민 한마당’ 행사 참가
 은하수클럽은 지난 2004년 6월 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명체육관 야외 운동장에서 광명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들과 함께한 ‘제5회 푸른광명 만들기 시민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원 활용을 통한 깨끗한 환경가꾸기,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장애아동과 함께 곤충 만들기, 고철을 이용한 시계 함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은하수클럽에서는 매월 2회(토요일) 광명시 소재의 장애인복지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 회원이 2개조로 편성되어 나들이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은하수클럽 ‘제5회 푸른광명 만들기 시민 한마당’

<한마음클럽>

• 노인병원 방문
 한마음클럽 회원들은 지난 7월 1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달에 생일을 맞은 분들의 생일잔치를 하였으며 이금순 회원이 샬플이 춤 공연을 하여 흥을 돋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매달 이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바느질 봉사도 함께하여 회원 간에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갖는다고 한다.

• 청주시 주관 ‘직지 축제’ 참가
 한마음클럽 회원들은 지난 9월 2일(목)부터 5일(일)까지 청주에서 주관하는 흥덕사지 금속활자 직지 축제에 참가하여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한마음 클럽 회원들은 10월 8일(금)부터 14일(목)까지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 한마음클럽 ‘제5회 푸른광명 만들기 시민 한마당’ 행사 참가 (2004. 6. 5. 광명체육관 야외 운동장에서)



• 한마음클럽 노인병원 방문 (2004. 7. 1.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베푸는 보람과 봉사로 기쁨 찾자

〈태백클럽〉

•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태백클럽 회원들은 지난 7월 복지관 학교의 장애어린이 행사에 58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6월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2학생에게 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도 향후 1년간 매달 1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독거노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쌀 40kg과 라면 4박스를 지원하였다.

〈동해클럽〉

• 불우이웃돕기 성품전달

동해클럽 회원들은 매달 불우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 9월에도 장애가구에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 40kg과 신라면 2박스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춘천클럽〉

• 의료봉사활동

춘천클럽은 지난 2004년 8월 22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 남산면 광관리 광관초등학교에서 춘천클럽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진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춘천시 남산면 광관1/2/3리와 행촌리, 통곡리 등 주민 800여 명에게 내과, 외과, 치과, 물리치료, 한의과 등 5개 분야의 진료와 함께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가스 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이·미

용, 노인 영정사진 촬영, 변호사 법률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양대클럽〉

• 정신지체아동시설에서 하계봉사활동

한양대클럽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0일(일)부터 6월 27일(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인제 애향원을 방문하여 키비탄 학우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는 정신 지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서, 한양대 클럽 회원들은 일주일간의 합숙생활 속에서 많은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며 장애인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 춘천클럽 의료봉사활동 (2004. 8. 22. 광관초등학교에서)



• 춘천클럽 의료봉사활동 (2004. 8. 22. 광관초등학교에서)

베푸는 보람과 봉사로 기쁨 찾자



• 한양대클럽 정신지체아동시설에서 하계봉사활동 (2004. 6. 20~26. 인제 애향원에서)

키비탄의 신조

- ▶ **나의 키비탄이다.** 인생과 함께 늙고, 무지개처럼 젊고, 세월과 같이 무궁하다.
- ▶ **나의 손은** 세계를 위하여 일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한다.
- ▶ **나의 귀는** 어린이의 울음소리, 평화와 선도, 인류 발전과 화합을 기구하는 세상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 ▶ **나의 눈은** 키비탄 정신으로 함께 봉사할 동료들을 찾는다.
- ▶ **나의 입은** 일상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나라말로 기도를 드린다.
- ▶ **나의 마음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국기에 대해 경의를 갖도록 스스로를 일깨운다.
- ▶ **나의 심장은** 모든 친구를 위하여 뛰며, 인간에 입힌 상처에 대해 슬퍼하며, 진리가 승리할 때마다 기쁨으로 고동을 친다.
- ▶ **나의 영혼은** 두려움을 모르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 ▶ **나의 희망은** 키비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 ▶ **나의 표어는** "훌륭한 시민정신을 기르자"는 것이다.
- ▶ **나의 신념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나도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다.
- ▶ **나의 서약은** 이 신념을 실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훌륭하고 고상한 시민정신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키비탄 소식』

2004
제 3 호

• 발행인 : 전 세 일
• 편집인 : 신 정 순
• 발행일 : 2004년 10월 1일

• 발행처 :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내
(직통) TEL. 364-7804, 361-7515
<http://www.civitankorea.com>